

말씀 나눔과 적용(Word)

1.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마주하고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한주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찢림과 잘못된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그 순간,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창18:20-21, 창18:22-23)

- ☞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잠시 지나가는 길을 멈추었던 하나님의 천사들은 목적지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보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이기에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현실을 살피시고 살피신대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 ☞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살피시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르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상을 낱알이 살피시고 죄악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해, 또는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분별함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거야.’라고 생각하며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한다면, 작은 죄악상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삶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2.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특권(축복)이 있다면 무엇이냐 생각합니까? 만남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지혜와 지식의 복, 등 나에게 주어진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창18:27, 히5:4)

- ☞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당에 나아와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원’(기도제목)을 아뢰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비와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힘쓰고 감격과 감사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 ☞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연약한 자들은 섬기기 위함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복을 주신 것은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배움과 섬김을 통해 사회와 삶의 영역에서 더 나은 도움으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삶에 부여하신 복을 세어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사명과 특권을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3. 오늘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과 내 가족, 성공과 결과만을 위한 기도로 예배당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창18:24-26, 창15:6)

- ☞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40, 30, 20,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심판을 멈춰 달라 간구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든 사랑하는 롯을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부모님,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자녀와 친구, 친인척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김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